

윤리경영 실천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워크숍 개최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 및 노사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 강화

한국어촌어향협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동안 충남 예산군의 민간 연수원에서 “윤리경영 실천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협회 전 임직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실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노사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방기혁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윤리 및 자세”에 관한 특강을 통하여 협회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업기반을 선도하는 어업인의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개개인이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철호 전무이사의 “불확실성 시대 직장인의 성공적인 자기관리”에 관한 특강과 함께 케이에이치슬루션 정형철 이사의 “공공기관 전략경영 구현을 위한 내부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방안”, 부패방지 청렴교육, 동반성장 시책교육과 비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뉴비전과 함께한 2012년도 경영성과” 시청각 교육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개인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윤리준법 자기점검 등을 위한 분임토론 및 액션러닝과 노사화합 한마당 등을 통해 노사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튿날 BP경진대회에서는 어항유지보수공사 시공 개선사례 및 신기술 개발제안, 국가어항관리 선진화 방안 등 창의·실용 우수사례와 신규 사업개발 연구추진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윤리현장 선포 및 윤리경영 실천 노사협력 합의서 교환 순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① 불확실성 시대 직장인의 성공적인 자기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장철호 전무이사
- ② 공공기관 전략경영 구현을 위한 내부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케이에이치솔루션 정형철 이사
- ③ 창의실용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조영진 차장
- ④ 분임토론 및 액션러닝
- ⑤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 ⑥ 노사협력 합의를 교환
- ⑦ 신규사업개발 연구추진 우수작 수상자
- ⑧ 노사한마음 체육활동(축구)





어촌을 달리다! 어촌사랑 자전거 대행진

- '어촌사랑 자전거 대행진' 개최 및 어촌체험행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마사회와 포항시가 후원한 '2012 어촌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11월 18일 경북 포항에서 성왕리에 개최되었다.

서울, 수도권 및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전거 동호인들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일반인 참가자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체험객 유치로 인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집결지인 구룡포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수산정책 국장을 비롯하여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김성경 포항부시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개회식 마무리와 함께 전체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구룡포항을 출발하여,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 도착하는 하프코스(6km)와 양포항을 경유하여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까지 주행하는 풀코스(18km)로 나누어 자전거 라이딩을 하였고, 각 코스 참가자들은 마을에서 어촌 주민이 직접 준비한 오징어물회, 생선구이, 과메기 등을 시식하며 어촌의 훈훈한 인심을 맛볼 수 있었다.

자전거 라이딩과 함께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에서 진행된 대나무 낚시대회에서는 28cm의 노래미를 잡은 베트남 유학생 훈 옥 티엠(Huynh Ngoc Tien, 울산대학교)씨가 우승하여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의 메실 과메기 세트를 받았다.

또한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그물의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전통어업방식인 후릿그물체험이 진행되어 어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라이딩과 어촌체험을 모두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복귀하였으며, 폐회식 및 자전거, 자전거용품, 구룡포 특산수산물 등의 푸짐한 경품추첨을 끝으로 이번 행사는 모두 종료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독특한 어촌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U자형으로 발굴한 전국 해안선 자전거 코스 52개 코스를 모두 달려보는 자전거 대행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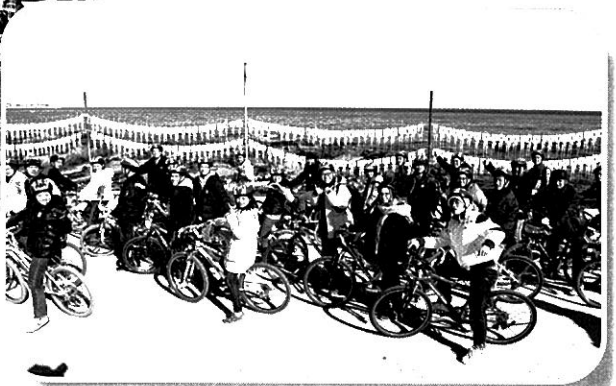
▲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후릿그물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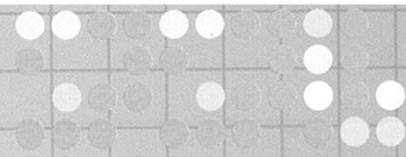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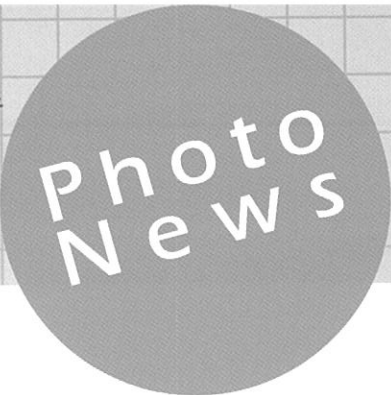
▲ 장길리 복합낙시공원 낚시대회



▲ 구룡포항 행사장 전경



▲ 자전거 라이딩



재해의 조속한 복구와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어항의 위생관리 및 노후화대책 촉구

-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에 방기혁 회장 초청·참석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는 지난 10월 25일 일본 아오모리현 마에다 아리나에서 제63회 전국어항어장대회를 개최했다.

귀빈자격으로 참석한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이날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장, 아오모리현 지사, 아오모리현 의회의장, 전국풍요로운바다만들기추진협회장 그리고 각 현의 관계자 약 2,000여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양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일본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은 「어항·어장·어촌·해안 정비의 촉진에 관한 건」을 위하여 전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의 총의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항·어장·어촌의 빠르고 계획적인 복구·부흥 및 전국의 어촌생활과 수산업을 지키는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

△ 안전·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어항의 위생관리 대책과 노후화 대책의 추진

△ 수산자원의 회복·증대를 위한 풍요로운 생태계를 지향하는 수산환경정비의 촉구

△ 어업자 등이 추진하는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발휘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지원과 산지수산물의 강화를 통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추진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방기혁 회장은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앞서 24일 저녁에는 수산관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대회전야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일본 수산관계자들과 양국관심사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또한 대회와 관련하여 아오모리현 시미즈가와(清水川)어항, 시리아(尻屋)어항, 하치노헤(八戸)어항과 아키타현 수산진흥센터 등을 시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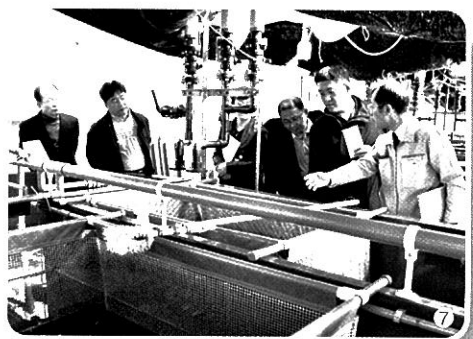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각현 어항어장협회장은 그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보였으며, 일본의 어항은 어항간 거리가 짧고 어업인 편의위주로 정비되고 있어 어업인은 1~2시간의 거리에서 어업을 하고 돌아와 가까운 어항에서 양륙, 위판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완공후에도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의 견고성과 편리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 대회장 전경



- ① 환영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방기혁 회장
- ② 환영리셉션에서 미무라신고 아오모리지사사와 관심사항에 대해 환담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방기혁 회장
- ③ 대회에 참석한 방기혁 회장
- ④ 어항정비현장에 대해 문의(시미즈가와어항)
- ⑤ 어항현황에 대한 설명(시리아어항)
- ⑥ 피쉬팜프를 이용한 고등어 양육(하치노헤어항)
- ⑦ 전복치패에 대해서 설명(아키타현 수산진흥센터)



깨끗한 낚시터 환경조성 및 국내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낚시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2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한국낚시연합과 깨끗한 낚시터 환경조성 및 국내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쾌적한 생태환경 및 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낚시터환경보전·교육 및 각종 예방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